

마스크 문화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가끔 보는 코미디 유튜브에서 코로나 시절에 학창 시절을 보낸 학생들이 동창회에 모여서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물론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보니 과장된 내용이지만, 왠지 이해되는 내용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단연 '마스크 착용' 일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이 잦아들자마자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그 시절을 잊고 있다. 마스크 없이 생활했던 원래의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왔다.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겨울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사라진 마스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에게 마스크는 일상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마스크는 주로 방한용품으로 사용되는 물건이었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일회용 마스크가 등장하였다. 즉,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보조적인 도구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우리와 다르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우리와는 달리 오랜 시간 형성된 생활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화분증(花粉症)-꽃가루 알레르기'이다. 일본은 봄철 삼나무 꽃가루가 심하게 날려 상당수의 국민이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오래전부터 눈이 녹기 시작하는 늦은 겨울부터 봄까지 마스크는 필수적인 생활용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꽃가루 차단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 마스크가 일상화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이미 일상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그 습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일부 설문조사에서 "마스크를 벗으려니 화장에 신경을 써야 해서 불편하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표정이 드러나지 않아 좋다."라는 내용이 가끔 등장한다. 그것은 마스크가 단순히 위생 용품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

적 안정과 편의성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 기간에 우리도 경험했고, 그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쉬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편의보다는 특수한 상황의 종료에 따른 일상 복귀라는 사회적 흐름이 더 크게 작용했을 뿐이다. 결국 마스크 착용의 지속 여부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생활 문화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마스크가 특수 상황에 사용하는 보조적인 도구인 한편,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일상용품이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되었으나 그것이 남긴 흔적은 각 사회의 문화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일상을 회복하였고, 일본은 마스크를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생활방식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도구라도 사용하는 방식이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유는 이러한 사소한 생활 문화가 다른 방향으로 축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일 (음 2월 14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60년생** 지금부터 새롭게 변신하면 길운이 열립니다. **72년생**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길하지 못합니다. **84년생**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  **49년생** 다 된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세요. **61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73년생** 기쁜 일이 생깁니다. **85년생** 이익이 넘치는 하루가 됩니다.
-  **50년생** 고민이 있으면 가족과 상의하세요. **62년생**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 합니다. **74년생** 업무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86년생** 식중독을 조심하세요.
-  **51년생** 계약이나 흥정을 할 경우 잘 성사됩니다. **63년생** 일거리가 밀려 매우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7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세요. **87년생** 어렵던 상황이 호전됩니다.
-  **52년생**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64년생** 남을 도우면 훗날 큰 이익이 됩니다. **76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8년생** 사방에서 길한 기운이 감싸고 있습니다.
-  **53년생** 끝이 없고 같이 분명치 못합니다. **65년생** 운은 좋은 시기를 만났으나 마음이 심란합니다. **77년생** 언행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89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친구와 다투게 됩니다.
-  **54년생**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남들에게 베풀세요. **66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78년생**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90년생** 밖에서 행운이 들어옵니다.
-  **55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대가의 빛을 보게 됩니다. **67년생** 활기차고 평온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79년생**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보이기 바랍니다. **91년생** 이성에 선물을 받게 됩니다.
-  **56년생** 반드시 기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68년생** 인간관계를 조심하세요. **80년생** 친한 사람의 배신을 조심하세요. **92년생** 비록 추진함은 있으나 뜻대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  **57년생**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괜히 탐내지 마세요. **69년생**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나쁜 기운을 받게 됩니다. **81년생** 재물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93년생** 본인의 의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  **58년생** 여행을 통해 머리를 맑게 하도록 하세요. **70년생** 공공 기관을 조심해야 할 까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82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94년생** 조심스런 하루를 보내세요.
-  **59년생** 좋은 사람이 도와 줄 것이니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71년생** 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세요. **83년생** 아름답고 빛이 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95년생** 학업에 매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AI반도체 호황 속 엇갈린 산업 온도



기지 수첩
구남영
(산업부)

인공지능(AI)이 산업계의 표정을 바꾸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앞세운 반도체 업계는 수년 만의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AI 메모리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과 투자 확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반도체로 쏠리는 이유다. 실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올해 9750억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업황 개선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다.

AI 서버 증설과 빅테크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HB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수요는 분명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흐름이 산업 전반의 경기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PC와 모바일 등 전통 수요처는 여전히 약한 흐름을 이어가며 업종별 회복 속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스마트폰과 PC, 가전 등 소비자용 연결된 업종은 여전히 전방 수요 둔화와 원가 부담에 직면해 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은 반도체 기업 실적에는 호재지만, 완제품 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역시 변수다. 여기에 애플과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원가 절감과 현지 조달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전자·부품업계는 수요 둔화와 공급망 변화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수요 지표도 아직 완전한 회복과는 거리가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PC 출하량은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부담이 소비 수요를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AI 반도체와 직접 연결된 일부 영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전체 산업 생태계의 회복 속도에는 여전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숫자의 개선과 현장의 체감 경기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론의 확산보다 냉정한 점검이다. HBM 호황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특정 분야에 국한된 국지적 호황에 머물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AI가 만든 봄기운 속에서도 산업 생태계 곳곳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남아 있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운세 살피기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필자의 어릴 적엔 보통 일반가정에서는 화투로 일과를 점쳐보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그 유명한 '고도리'라는 만화 역시 화투놀이에서 나온 것인데, 요즘 Z세대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일간지에서 '오늘의 운세'를 게재했는데 과거에는 자신의 사주나 운세를 알려면 전문 역학인이나 무속인들에게 묻는 것이 다였으며, 민간에서 즐겨 사용하는 것은 토정비결이나 당사주 책이었다. 토정비결이나 당사주 역시 보는 방법은 전통적인 사주명조 감명보다야 쉬운 편이지만 이 역시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나 언문을 읽을 줄 아는 할머니들이 봐주기도 했었고, 간단히는 손가락 마디를 짚어가며 당사주의 기본 운기를 봐주는 정도였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당사주도 개인의 운명의 개락을 보는 데는 허술하지 않다는 점이다. 초년부터 말년까지 운기의 요점을 뽑아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토정비결은 운기가 좋은 좋지 않은 간에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팁을 준다. 예를 들어 토정비결의 123과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수왕기추 구주상존 허황지사 신물행지(雖曰箕?舊主?存虛荒之事慎勿行之), 유지미취 신수나하 사직불리 농즉유리(有志未就 身數奈何 仕則不利 農則有利)"라고 되어 있다. 뜻인즉슨 "허황은 키나 빗자루라도 본디 주인은 따로 있다. 허황한 일은 삼가고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뜻은 있으나 취할 수 없으니 이 운수를 어찌하라. 벼슬은 불리하고 농사를 지으면 유리하다."이다. 분명 좋은과는 아니지만 벼슬을 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농사를 지으면 유리하다고 말해 주니, 잠시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씨 뿌리고 작물을 키우는 일거리를 하는 가운데 때를 도모할 수 있음을 일러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7		6 4		9
				3 7
1 5	9 7			8
			8	
1	9		5	4
5				
7		8 9	6 4	
3 9				
5		2 1		7

5		6		1	4
				2	
4 1		8 3			
			1	3	6
		1 3	8 5		
3	7	2			
			8 9		3 1
		6			
9	2		4		7

8	2	6	9	1	2	8	7	9
2	1	8	9	7	2	9	6	8
9	7	9	6	8	8	1	2	2
1	6	8	8	2	7	2	9	9
7	2	9	2	8	9	6	8	1
9	8	2	1	6	5	2	8	7
8	9	7	8	6	9	1	2	2
2	8	1	2	9	8	7	9	6
6	9	2	7	9	1	8	2	8

2	9	8	7	9	1	2	8	6
2	7	6	8	2	9	9	8	1
1	8	9	6	8	2	9	7	2
8	1	7	9	2	6	2	9	8
6	1	9	8	7	8	1	9	2
9	2	8	9	1	2	7	6	8
9	9	2	8	8	6	1	7	7
8	6	2	1	9	7	8	2	9
7	8	1	2	6	9	8	2	9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8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9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선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